

마하야나문화원, 청소년시설 수탁

대구 청소년문화의집 '아름드리'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사장 선지)은 11월 27일 대구 동구에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아름드리'를 수탁했다. 아름드리는 동구 율하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자리하며,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설 규모는 부지 1300㎡에 연면적 2950㎡로 지하1층 지상5층이다. 37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어 문화의집 규모로는 큰 편에 속한다. 내부에는 1층 청소년카페와 미디어체험실, 2층 영어학습실과 북카페, 3층 동아리 및 회의실, 4층 밴드 · 요리 · 댄스 · 체력단련실, 5층 대강당 등을 갖췄다.

동구청에서 진행된 위탁식에서 배기철 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정책사업 역할과 서비스 허브 등을 수행하도록 애정으로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선지 스님은 "그동안 법인의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의 문화와 정서적인 아지트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아름드리는 이번 위탁에 따라 12월 11일부터 3년간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운영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추장에 담은 불자들 온정

진안 사찰들, 소외계층 고추장 후원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 고림사(주지 성목)는 11월 23일 진안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진안홍삼고추장 대축제에 동참,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층 세대를 후원하기 위해 진안 특산물인 홍삼고추장을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했다.

고추장축제에는 각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해 탑사 나누우리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고림사 봉사단과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등 이웃종교단체가 함께했다.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진안 지역 4대 종단을 비롯한 봉사자들과 오랫동안 봉사활동에 동참해왔다"며 "다가올 추위로 힘들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홀몸 어르신들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길 바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남 종무원사 건립 태고종 발전 마중물"

Interview

태고종 경남교구 17대 종무원장 환명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종무원사 부지 진입로 문제
적극 소통으로 해결에 앞장
지역 강원 관리해 출가 확대
소임자 임명과정 투명하게

"태고종 경남교구 종도들의 숙원 사업인 종무원사 신축을 이뤄 터전을 잡고, 후학양성 및 종무행정 시스템을 확립해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제17대 종무원장에 당선된 환명 스님은 11월 28일 경남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태고종 경남교구는 이날 마산 관음정사에서 '제17대 종무원장 종책 발표 및 당선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환명 스님은 경남교구의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 앞에서 종책과제를 설명하며 "경남교구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환명 스님은 '종무원사 신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종무원사 건립은 종도들의 숙원사업이다. 종무원사는 공동의 과업이며 현재 경남 함안에 마련된 종무원사 후보부지 진입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활동하고 노력한 스님들과 소통해 반드시 종무원사 신축을 알리는 첫 삽을 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명 스님은 "안으로는 후학양성과 종무행정 시스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태고경남강원 학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위상과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차별화된 강원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법계고시 자동 응시자격을 중앙종회를 통해 종법으로 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환명 스님은 종무행정을 위한 시스템 확립에도 방점을 찍었다. 스님은 "종법과 행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을 제시해 어느 누가 소임을 보더라도 교구의 모든 종도들이 인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형화 된 업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든 소임자의 임명도 능력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명 스님은 '포교홍보사업'과 '직할 공찰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스님은 "종무원장은 모든 종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고, 교구 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종무원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종무원 직할 공찰 관리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삼보정재가 망실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명 스님은 1969년 구미 해운사에서 출가 후 동화사 및 직지사 말사에서 수행을 이어오다 성봉 스님과의 인연에 따라 태고종으로 이적했다. 태고종 경남교구 부원장, 경남교구 종회의장, 태고종 총무원 초심원 부원장,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오산 약수암 주지를 맡고 있다. 무료급식과 범음범패로 지역 포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 재능 뽐낸 삼광사 도량

전국 중 · 고등학생 대상
2019 청소년 가요제 개최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청소년을 위한 가요제를 열고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펼치도록 도왔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11월 23일 경내 지관전에서 '2019 청소년 가요제 IN BUSAN'을 개최했다. 가요제 예선은 10월부터 두 달 간 전국의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총 70여 팀이 신청했다. 본선에는 10팀이 출전해 끼를 뽐냈다.

본선에 진출한 10팀 중 최우수상은 박해원 학생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GARNET, 장려상 김민서 학생, 응원상 FUNLIEST가 선정됐다. 나머지 6팀에게는 격려상이 수여됐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참가자들이 열띤 공연을 펼칠 때마다 박수와 호응으로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삼광사 청소년 가요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무대에서 갈고닦은 끼를 뽐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댄스 퍼포먼스 대회에서 우승하며 아시아챔피언 타이틀을 얻는 아너브레이커즈와 사회를 본 미스트롯 출신 강혜민 씨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입시에서 벗어나 산사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드러내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광사는 11월 25일 경내에서 부산 다문화가족 김장나눔 문화제를 개최했다. 김장문화제에는 삼광사 신도회를 비롯해 자원봉사가 등 700여 명이 참여해 김장 1만 포기를 담갔으며, 자비의 쌀 10kg 1000포를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 3000세대에 전달했다.

김장에 사용된 배추 1만 포기 가운데 일부는 천태종 단양 구인사에서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배추로 알려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스피스 돕는 명상수련

환희불교복지대학, 환희노인요양원서 개최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산하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은 11월 21일 환희노인요양원 5층 강당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명상 수련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개최했다. 명상수련에는 학장 지현 스님과 김기호 지도법사(내원정사 템플스테이) 및 호스피스 봉사자 등 병원 관계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남 공무원 소명의식 되새겨

경남불자공무원연합회, 관룡사서 창립기념법회



경남불자공무원연합회(회장 백유기)는 11월 23일 창녕 관룡사 대웅전에서 창립 제18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백유기 경남불자공무원연합회장은 "공무원으로서 마음가짐과 멸사봉공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된다"며 "개인 수행정진과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는 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환자들 쾌유 지극히 기원"

사하구불교연합회, 한우리요양병원 작은음악회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은 11월 21일 한우리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매년 봄과 가을,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가족,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는 사하구불교연합회장 법인 스님과 총무 송우 스님 등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 6F, 35, Haeyang-ro 247beon-gil, Yeongdo-gu, Busan